



모유수유아의 성장발달 상태와 어머니의 양육 경험

권인수¹⁾ · 이수연²⁾ · 백경선³⁾ · 양영옥⁴⁾ · 이지원⁵⁾ · 정향미⁶⁾ · 박정희⁷⁾ · 신상춘⁸⁾

1)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거제대학 간호과 부교수, 3) 진주보건대학 간호과 부교수, 4) 좋은 삼선병원 수간호사, 5)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6)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7) 마산대학 간호과 교수, 8) 마산대학 간호과 교수

= Abstract =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Breast-fed Infants and Parenting Experience of their Mothers

Kwon, In-Soo¹⁾ · Lee, Soo-Yeon²⁾ · Baek, Kyoung-Seon³⁾ · Yang, Young-Ok⁴⁾
Lee, Ji-Won⁵⁾ · Jung, Hyang-Mi⁶⁾ · Park, Jeong-Hee⁷⁾ · Shin, Sang-Chun⁸⁾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4) Head Nurse, Goodsamsun Hospital
5)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6)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7)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8)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scribe growth and development of breast-fed infants and to depict experiences of breastfeeding mother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45 infants and mothers participating in A Healthy Breastfeeding Infant Contest. The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the participants and an evaluation record completed by the examiners. **Results:** The more specific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weight of the infants was much higher than the Korean Standards. The height of infan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Korean Standards except for 5 month old male infants. The results of Denver II showed all 145 infants were classified as normal. The breastfeeding experiences in mothers was as follows; 31.7% of the mothers breastfed for 5 months, 48.3% wanted to breastfed as long as the baby wanted. The mothers pointed out that the difficult problem in breastfeeding was insufficient breastfeeding room in public areas. What mothers want to know related to breastfeeding was, breastfeeding duration, time to begin solid food and recommended amounts, time to discontinue breastfeeding at sleep time and appropriate methods. **Conclusion:** Mothers' experience in breastfeeding was positive. We should provide mothers a comfortable place in public areas for breastfeeding.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s propose that health professionals must intervene in breast care during both antepartum and early postpartum periods.

Key words : Infant, Mothers, Parenting, Breast feeding

주요어 : 모유수유 영아, 모유수유 어머니, 성장발달, 양육경험

교신저자 : 이수연(E-mail: sylee@koje.ac.kr)

투고일: 2006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06년 10월 19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oo Yeon(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Koje College

Jangsongpodong, Kojeshi, Kyounghnam 656-701, Korea

Tel: 82-55-680-1585 Fax: 82-55-680-1517 E-mail: sylee@koje.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정서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영양은 단독 요인으로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영양요소는 모든 발달단계에서 성장을 조절하며, 그 효과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난다(Kim et al., 2004). 특히 영아기는 성장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시기로 이 때 어떤 형태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였는가는 평생 동안의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모유에는 적절한 양의 시스틴과 타우린을 포함하는 단백질, 소화 흡수가 쉬운 락토탄수, 장내 미생물 성장을 촉진하고 비티민 B를 합성하는 락토즈, 지방과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불포화 지방산, 적절한 양과 조성비를 가지고 있는 무기질과 비티민, 성장과 성숙을 조절하는 성장 조절제, IgA와 같은 다양한 면역학적 이점과 배변 완화 효과를 가진 유일무이한 성분으로 영아의 영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Wong, Hockenberry, Wilson, Winkelstein & Kline, 2003).

Lee, Willoughby & Mayo(2005)은 모유수유를 한 아동과 어머니가 가지는 이점을 고찰한 연구에서 아동은 중이염과 같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력과 알레르기, 설사 빈도 감소와 관련이 있는 연구가 다수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영아기에는 영아돌연사 증후군, 유문협착증, 아동 후기에는 당뇨병, 임파종, 크론병, 편도선염, 소화 장애,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질병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는 자궁 복귀와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이 쉽고 빠를 뿐만 아니라, 난소암과 폐경전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Lee et al., 2005). 동시에 모유수유를 한 어머니는 아기에게 친밀감과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유수유는 영아에게 영양, 면역 및 알레르기,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조제유 수유보다 유익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사회 경제적 이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뿐만 아니라 모유는 영아의 성장발달 단계와 하루 중 시간에 맞추어 양과 조성이 달라지며, 영아의 요구와 수에 따라 유즙 분비량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영양법이다(Lowdermilk, Perry, & Piotrowski, 2003).

이에 세계 각국이 모유수유를 중시하고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그 동안 감소되었던 모유 수유율을 증가시켜 왔다(Park, Lee, Jang & June, 2001; Ju, Lee, & Kim, 2001; Hwang, 2004). 특히 미국

에서는 'Health people 2000' 국민건강사업으로 1970년대 20%였던 모유 수유율이 1995년 60%대로 상승하였다. 현재는 'Health people 2010'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 산모가 퇴원할 때는 75%가 모유수유를 하며 생후 6개월까지 최소한 50%는 모유수유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Lee, et al., 2005).

하지만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조사 대상자의 월령, 조사 방법, 조사 시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1970년에 90.0%였던 모유 수유율이 2003년 출산력 조사에서 16.5%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에 있다(Kim, Cho, Kim, Park과 Lee, 2003).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와 모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조제유의 광고 금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 대한간호협회의 각 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별대회나 간호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유수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어 왔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보면, 모유 수유율과 지속 기간, 모유수유 양상 등을 포함하는 모유 수유 실태 조사(Kim et al., 2003; Park et al., 2001), 모유수유 기간 및 실천 관련 요인(Park, 2002; Yeo, 2005; Lee, 2003; Lee, Chung, Ahn, Moon, & Park, 2003; Lee, Park, & Park, 2002; Hwang, 2004), 모유수유와 영아의 성장발달(Ju et al., 2001), 모유수유모의 양육행동(Kim, Lee, & Kim, 2001; Lee, 2003; Lee, Kim, & Cho, 2005) 등이 있고,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 연구(Kang, 2006; Park & Koh, 2001; Yeon, 2004; Yoo, Kim, & Seo, 2002)도 다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대다수가 산육 초기의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수행하였고, 영아에 대한 모유수유의 영향과 모유수유모의 양육 행동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모유수유 여부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전략에 못지않게 모유수유아의 성장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모유수유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WHO에서도 7개의 국제 연구 센터에서 모유수유아의 국제적 성장 발달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Wong et al., 2003).

이에 영아기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영아의 성장발달 결과는 모유 수유아의 성장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간의 모유수유 지속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사회에서 주관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따른 영아의 성장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조사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유방법에 따른 영아의 성장발달 특성, 모유수유 증진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심사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5, 6, 7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지속하고 있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의 성장발달과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아의 성장발달 상태와 건강력을 파악한다
-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파악한다.

용어 정의

• 성장발달

성장과 발달은 일생 동안 일어나는 여러 영역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하나의 단위로 지칭된다. 성장은 신체의 양적 변화를 의미하며, 세포의 수와 크기의 증가로 일어나며 신체 전체 혹은 부분의 크기와 무게의 증가로 나타난다. 발달은 기능의 점진적인 변화와 확장을 의미하며, 낮은 단계에서 더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는 질적 변화를 포함한다 (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아 출생 시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당일 신체 계측치와 한국형 Denver II(Shin, Han, Oh, Oh, & Ha, 2002)로 발달 사정한 것을 의미한다.

• 양육경험

양육은 부모와 자녀 사이 혹은 부모 대리자와 아동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살피는 활동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양육은 불변의 형태가 아니며 시간, 공간, 대상에 따라 변하며 노력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며, 양육 제공자는 태도, 행동을 양육을 제공받는 자는 환경을 하부 개념으로 가진다(Lee, 1998).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모의 수유경험, 양육경험, 육아지식을 사전 조사지에 기입한 것을 통계처리하고 내용분석한 것과 모유수유아 대회 당일 묻고 답한 육아지식을 점수화한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모유수유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력,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간호사회와 경상남도가 주최한 제 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개월, 6개월, 7개월의 영아 및 어머니 각각 49쌍, 48쌍, 48쌍 총 145쌍이다. 대회 참가 자격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생 후부터 현재까지 모유 수유를 하고 있고, 건강한 영아로 소아과 의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이다.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대회 참가 신청서에 첨부되어 참가자가 신청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제작된 사전 조사지와, 대회 당일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기준이다. 사전 조사지와 심사기준은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력, 모유수유와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모유수유 전문가, 아동간호학 교수, 신생아실 수간호사, 소아과 의사가 포함된 15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

사전 조사지에 포함된 내용은 모아의 일반적인 특성과, 영아의 특성으로 성장발달(출생 시 및 현재의 신체계측, 발달검사)과 건강력(알레르기 유무, 배변회수, 수면시간), 어머니의 양육 특성으로 수유경험(순수 모유수유 기간, 모유수유횟수, 이유식 시작시기, 이유식, 모유수유계획, 모유 수유시 가장 어려웠던 점), 양육경험(분만 후 영아와의 첫 접촉 시기, 영아를 재울 때 체위, 양육경험, 영아와 둘만 있을 때 하고 싶은 일), 육아지식(지식 출처, 모유수유에 관한 알고 싶은 지식의 내용) 등이다. 사전 조사지 중 '모유 수유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알고 싶은 지식'과 '누군가 집안일을 해 준다면 영아와 하고 싶은 일'은 대상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대회 당일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기준은 한국형 Denver II 검사, 현재 체중과 신장, 육아지식이다. 한국형 Denver II 검사는 Shin 등(2002)의 검사시행 방법과 해석에 따랐다. 한국형 Denver II 검사의 해석은 정상발달, 의심스런 발달, 검사 불능으로 나누며, 재검사에서 의심이나 검사 불능이 나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의 특성상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대상자를 확인할 필

요성을 느꼈으며, 발달 검사를 맡은 심사위원 6인의 회의를 거쳐 발달검사 결과를 점수화 하였다. 의심스런 발달은 4점, 정상 발달은 6점을 주었다. 정상발달이지만 점수 차이를 주기 위하여 아동 연령선에서 +1개월에 해당하는 선을 그은 후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영역과 운동 발달 영역 중에서 50% 이내의 아동이 통과하는 항목 또는 가장 가까운 우측 항목을 확인하였다. 연령선에서 +1개월 선에서 해당 항목이 있는 2개 영역 중에서 2개 이상 항목 통과 시 10점, 1개 항목 통과시 9점, 해당 연령선에서 주의항목이 없을 경우 8점을 주어서 차별화시켰다.

육아지식은 모유수유에 관련된 내용과 12개월 이내 영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된 17문항의 정오형 질문지에서 무작위로 5문항을 선정하여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한다.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대회 참가 신청서 접수 기간인 2005년 8월 8일에서 8월 13일까지와 9월 8일 대회 당일이었다. 사전 조사지는 어머니가 미리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회 당일 현재 체중과 신장은 신생아실 주간호사인 심사위원이 측정하였고, 발달검사는 한국형Denver II 검사 훈련을 받은 아동간호학 교수와 보건간호사가 평가하였으며, 육아지식은 모유수유 전문가인 심사위원이 무작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묻고 답하게 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영아의 체중과 신장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대한소아과학회, 1998)와 일 표본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 영아의 건강력, 어머니의 수유경험, 양육경험 및 양육지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모유 수유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알고 싶은 육아지식과 영아와 돌만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은 대상자가 자유롭게 기술한 것을 3명의 연구자가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7.2%, 여아가 42.8%이었고, 아버지

연령은 평균 33세였으며, 31-35세군이 51.7%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연령은 평균 30세였으며, 27세 이하군이 57.3%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84.1%가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태기간은 평균 39.43±.01주였고, 38주-42주 사이가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영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둘째로 36.6%였다. 출산계획 여부는 '예'가 57.9%로 '아니오'의 37.9%보다 많았다.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72.4%, 제왕절개 분만이 27.6%였다. 영아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3,408.38±3.39gm이었고, 3,000-3,500gm이 48.3%로 가장 많았으나 3,500gm 이상인 영아도 33.8%로 나타났다. 출생 시 평균 신장은 50.81±.16cm이었고, 50-52cm이 57.2%로 가장 많았다. 출생 시 평균 두위는 34.50±.19cm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5)

항 목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영아 성별	남아	83	57.2
	여아	62	42.8
아버지 연령	30세 이하	42	29.0
	36세 이상	28	19.3
어머니 연령	27세 이하	83	57.3
	28-32세	55	37.9
어머니의 취업 유무	취업	21	14.5
	취업 유무	122	84.1
재태기간	38주 미만	7	4.8
	38-42주	122	84.2
출생순위	첫째	82	56.6
	둘째	53	36.6
출산계획	셋째 이상	10	6.9
	예	84	57.9
분만형태	아니오	55	37.9
	무응답	6	4.1
출생체중 (gm)	자연분만	105	72.4
	제왕절개분만	40	27.6
출생신장 (cm)	3000.00 이하	23	15.9
	3000.01-3500.00	70	48.3
출생두위 (cm)	3500.01 이상	49	33.8
	무응답	3	2.1
출생신장 (cm)	50.00이하	31	21.5
	50.01-52.00	83	57.2
출생두위 (cm)	52.01이상	25	17.3
	무응답	6	4.0
출생신장 (cm)	33.00이하	24	24.4
	33.01-34.00	27	27.5
출생신장 (cm)	34.01-35.00	42	29.0
	35.01이상	38	26.2
출생신장 (cm)	33.00이하	19	13.2
	33.01-35.50	50	34.5
출생신장 (cm)	35.51이상	7	4.9
	무응답	69	47.6

<표 2> 체중과 신장의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와의 비교(일표본 T검정)

나이 (개월)	성별	체중(kg)		t(p)	신장(cm)		t(p)
		평균±표준편차	표준치		평균±표준편차	표준치	
5	남	8.72±1.04	7.93±0.9	4.194(.000)	67.9±2.31	66.8±2.8	2.549(.017)
	여	8.18±0.72	7.51±0.8		66.4±2.16	65.7±2.7	
6	남	9.28±1.30	8.52±0.9	2.929(.007)	68.9±2.31	69.0±2.5	-244(.810)
	여	8.96±0.97	7.95±0.8		68.1±2.58	67.5±2.4	
7	남	10.43±1.13	8.74±1.0	7.656(.000)	71.1±2.81	70.4±2.7	1.280(.213)
	여	9.68±1.03	8.25±0.9		69.0±2.20	69.1±2.9	

고, 평균 흉위는 33.53±.21cm이었다<표 1>.

+1개월 연령선의 항목 통과가 2개인 10점도 2.8%였다<표 3>.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력

● 성장발달

영아의 성장발달은 현재 체중, 신장, 한국형 Denver II에 의한 발달검사를 점수화하여 분석하였다.

영아의 현재 평균 체중은 남아의 경우 5개월 8.72kg, 6개월 9.28kg, 7개월 10.43kg으로 한국 표준치인 7.93kg, 8.52 kg, 8.74kg과 일 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3개의 월령 모두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 여아의 경우도 5개월 8.18kg, 6개월 8.96kg, 7개월 9.68kg으로 한국표준치인 7.51kg, 7.95kg, 8.25kg보다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현재 평균 신장은 남아의 경우 5개월 67.9cm, 6개월 68.9cm, 7개월 71.1cm로 한국표준치인 66.8cm, 69.0cm, 70.4 cm와 비교할 때 5개월에서는 p<.05 수준에서 더 컸고, 6, 7개월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 5개월 66.4cm, 6개월 68.1cm, 7개월 69.0cm로 한국 표준치인 65.7cm, 67.5cm, 69.1cm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발달상태는 한국형 Denver II 검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대상자 145명 영아 모두 정상발달인 6점 이상이였다. 해당 연령선에서 주의 항목이 없는 8점이 67.6%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연령선보다 +1개월 연령선의 항목 통과 1개인 9점이 20.7%, 주의항목이 1개인 6점이 9%였으며, 해당 연령선보다

● 영아의 건강력

알레르기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인 88.3%가 알레르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배변횟수는 하루 1회가 58.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2회로 24.8%였다. 수면시간은 하루 11-15시간이 42.8%로 가장 많았고, 16시간 이상 수면하는 영아도 23.4%였으며, 평균 수면시간은 13.86±.27 시간이었다<표 4>.

<표 4> 영아의 건강력

(N=145)

항목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알레르기	유	1	0.7
	무	128	88.3
배변횟수	무응답	16	11.0
	1회/2-3일	10	6.9
수면시간	1회/일	85	58.6
	2회/일	36	24.8
	3회/일	7	4.8
	4회/일	1	0.7
	5회 이상/일	4	2.8
	무응답	2	1.4
수면시간	10시간 이하/일	21	14.5
	11-15시간/일	62	42.8
	16시간 이상/일	34	23.4
	무응답	28	19.3

어머니의 양육 경험

● 수유경험

완전 모유수유 기간은 5개월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개월 24.8%였으며, 3개월은 1.4%에 불과하였다. 하루 모유수유 횟수는 8-9회가 24.1%로 가장 많았고, 7회와 9회 이상이 각각 22.1%로 그 다음이었다. 모유 수유계획은 '아기가 원할 때까지'가 48.3%로 가장 많았고, '12개월까지'가 그 다음으로 41.4%였으며, 6, 7, 8개월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모유수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 실천, 모유 및 유방상태, 어머니의 생활양식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세 영역 중 대상자

<표 3> 영아의 발달검사 점수

(N=145)

점수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4	0	0.0	8.08±.01
6	13	9.0	
8	98	67.6	
9	30	20.7	
10	4	2.8	

- * 4점 : 해당 연령선에서 주의항목 2개이거나 지연 항목 1개
- 6점 : 해당 연령선에서 주의항목 1개
- 8점 : 해당 연령선에서 주의항목 없음
- 9점 : 해당 연령선보다 +1개월 연령선의 항목 통과 1개
- 10점 : 해당 연령선보다 +1개월 연령선의 항목 통과 2개

<표 5>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

(N=145)

항 목	빈도(명)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완전모유수유	2	1.4	5.40±.01	
기간	4개월	19.3		
	5개월	31.7		
	6개월	24.8		
	7개월	15.2		
	무응답	7.6		
모유수유횟수	4회 이하/일	4.1	5.40±.01	
	5회/일	11.0		
	6회/일	10.3		
	7회/일	22.1		
	8-9회/일	24.1		
	9회 이상/일	22.1		
	무응답	6.2		
모유 수유	6개월까지	0.7		5.40±.01
계획	7-8개월까지	4.8		
	9-10개월까지	4.8		
	11-12개월까지	41.4		
	영아가 원할 때 까지	48.3		
모유수유 과정에서	모유수유 실천	107	5.40±.01	
가장 어려웠던 점	공공 장소에서의 수유공간 미비	31		
(복수 응답)	초기 적응장애 (젖이 돌지 않음, 영아가 빨지 못함)	21		
	수유자세	17		
	밤중 수유	10		
	영아의 수유습관 (젖 물고 자기, 젖 깨물기 등)	9		
	젖은 수유 빈도	7		
	모유수유지식 및 육아상담접근성 부족	6		
	주위의 조제유 수유 권장 압력	3		
	큰 아이 질투	3		
	모유 및 유방 상태	79		
	유방울혈(젖몸살)	23		
	유두통증	19		
	모유량 부족 및 부족 시 대처법	16		
	유두함몰 혹은 유두 크기 불균형	13		
	모유량 과잉	8		
	어머니의 생활양식	22		
	음식 가려먹기	8		
	외출 제한	8		
	아플 때 치료하기(투약 등)	4		
	몸매관리	1		
	부부생활	1		
	어려움 없었음	6		

145명에 대한 백분율을 보면 모유수유 실천 어려움이 107명(73.8%)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모유량 및 유방 상태 어려움 79명(54.5%), 어머니의 생활양식 어려움 22(15.2%) 순이었으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6명(4.1%)이었다. 전체 어려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응답한 내용은 공공장소에서의 수유 공간 미비로 31명(21.4%)이 응답하였고, 다음이 유방울혈(젖몸살)로 23명(15.9%), 초기 적응장애(젖이 돌지 않음, 영아가 빨기 못함) 21명(14.5%), 수유자세 17명

(11.7%) 순이었다. 모유 및 유방 상태 어려움 중에서 유방울혈(젖몸살), 유두통증, 유두함몰 혹은 유두 크기 불균형 등 유방 자체의 어려움이 총 55명(38.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모유 수유에 따른 어머니의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소수만 응답하였다<표 5>.

- 양육경험

영아를 처음 접촉한 시기는 1일 이내가 55.2%로 1일 이후

<표 6> 어머니의 양육 경험

(N=145)

항목	빈도(명)	백분율(%)
영아를 처음 접촉한 시기	1일 이내	55.2
	1일 이후	43.4
	무응답	1.4
영아를 재우는 체위	복위	4.1
	앙와위	66.9
	앙와위→복위	28.3
	무응답	0.7
집안 일은 영아가 잠든 후에 함	그렇다	75.2
	그렇지 않다	24.8
영아의 성장 발달에 대해 남편과 대화함	그렇다	87.6
	그렇지 않다	12.4
영아에게 이야기나 노래를 해줌	그렇다	99.3
	그렇지 않다	0.7
영아가 나(어머니)와 놀고 싶어해서 힘들	그렇다	40.7
	그렇지 않다	59.3
누군가 집안일을 해준다면 영아와 하고 싶은 일 (복수응답)	마음껏 놀아주기 (음악듣기, 책읽어 주기, 산책, 함께 목욕하기 등)	51.0
	자연 경관과 동식물 보여주기	18.6
	함께 실컷 잠자기	17.2
	집밖 세상 보여주기	15.9
	육아 모임 참석하기	11.7
	여행	7.6
	문화공간 이용하기(도서관, 미술관, 영화관 등)	6.2
	쇼핑하기	4.8
	휴식	1.4
	너무 많다	0.7
	무응답	7.6
	하고 싶은 일 없음	0.7

43.4%보다 많았고, 영아를 재우는 체위는 앙와위가 66.9%로 가장 많았으며, 처음부터 복위로 재우는 경우는 4.1%로 소수였다. 양육 행동에 있어서 집안일은 영아가 잠든 후에 하는 경우가 75.2%였고, 영아의 성장발달에 대해 남편과 대화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7.6%로 대부분이었으며, 영아에게 이야기나 노래를 해 주는 경우는 99.3%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아가 나(어머니)와 놀고 싶어 해서 힘이 드는 경우(40.7%)보다는 힘이 들지 않다고 하는 경우(59.3%)가 더 많아서 영아와 노는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군가 집안일을 해 준다면 영아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을 대상자 145명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어주고 산책하거나 함께 목욕하면서 마음껏 놀아주고 싶다가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연 경관과 동식물 보여주기 18.6%, 함께 실컷 잠자기 17.2%, 집밖 세상 보여주기 15.9%로 나타났다<표 6>.

● 양육 지식

지식의 출처는 인터넷이 8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른 및 이웃 62.8%, 책 52.4% 순이었다. 어머니가 획득한 지

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7(±0.01)점이었고, 4점을 획득한 대상자가 40.7%로 가장 많았다.

알고 싶은 모유수유 관련 지식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을 대상자 145명에 대한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모유수유의 실제, 이유 및 이유식, 모유수유의 영향 세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세 영역 중 모유수유의 실제에 대한 지식 요구가 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이유 및 이유식 17.2%, 모유수유의 영향 11.0%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이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이유식 시작 시기와 양 7.6%, 밤중 수유 중단 시기와 방법, 어머니가 섭취한 음식 및 약물의 영향이 각각 6.2%로 나타났다<표 7>.

논 의

본 연구에서 월령별 영아의 현재 체중과 신장을 1998년 대한 소아과학회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Ahn, 2004)와 비교한 결과 체중은 남아, 여아를 불문하고 한국 표준치보다 높았고, 신장은 5개월 남아를 제외하고는 한국 표준치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1998년 대한 소아과학회 한국 소아의 체중, 신장 백분위수(Ahn, 2004)와 비교해 보면 출생시 체중

<표 7> 어머니의 양육 지식

(N=145)

항 목		빈도(명)	백분율(%)	M±SD
지식의 출처 (복수응답)	인터넷	123	82.8	
	책	76	52.4	
	의사	9	6.2	
	간호사	7	4.8	
	어른 및 이웃에게 듣기	91	62.8	
	대중매체	8	5.5	
지식 점수	2점	8	5.5	3.97±0.1
	3점	33	22.8	
	4점	59	40.7	
	5점	45	31.0	
모유수유에 관해 알고 싶은 지식(복수응답)	모유수유 실제	73	50.3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	37	25.6	
	밤중 수유 중단 시기와 방법	9	6.2	
	수유회수 및 양, 간격	8	5.5	
	모유의 특성(물젖과 참젖의 차이, 모유의 냉동보관 기간 등)	6	4.1	
	유즙분비 촉진법	6	4.1	
	수유방법	5	3.4	
	수유자세	2	1.4	
	이유 및 이유식	25	17.2	
	이유식 시작 시기와 양	11	7.6	
	이유식 및 영양제의 필요성 및 종류	8	5.5	
	젖떼기 방법	6	4.1	
	모유수유의 영향	16	11.0	
	아기에 대한 영향(어머니가 섭취하는 음식 및 약물의 영향)	9	6.2	
	어머니에 대한 영향(임신과 모유수유, 어머니의 골 건강, 가슴관리, 체중관리)	7	4.8	
	무응답	29	20.0	

은 50~75%, 신장은 90~97%에 있었다. 5, 6개월 영아의 체중은 남아, 여아 모두 75~90%에 속하였으며, 7개월 남아, 여아의 체중은 90~97%에 있었다. 신장은 5개월 남아, 여아, 6개월 여아, 7개월 남자는 50~75%에 속하였으며, 6개월 남자는 25~50%, 7개월 여아는 50%에 있었다. 이는 Ju 등(2001)의 모유 수유아 참가 대상 영아의 체중이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보다 높고, 신장은 한국표준치보다 작게 나온 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청주 지역 남아 15명, 여아 12명을 6개월간 추적한 종단적 연구(Han, Seol & Kim, 1995)에서는 출생시 체중은 남아, 여아 모두 50%였으나 1개월에는 25%에 있으며, 남자는 2~5개월 여아는 2~3개월에는 50% 이하이고, 남자는 6개월에 여아는 4개월이 지나면서 50%에 있다가, 6개월이 되면서 50% 위에 속했다. Han 등(1995)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유식 첨가 시기와 양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Butte 등과 Dewey 등의 연구(Wong et al., 2003에서 인용됨)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유 수유아는 조제유 수유아에 비해서 성장률은 느리고 야위어 보이며, 생후 12~15개월경에 조제유 수유아와 비슷해진다(Wong et al., 2003)는 사실과 우리나라

모유수유율이 2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는 특히 체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장과는 다르게 체중만 표준치보다 높은 결과는 대상자가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로서,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육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체중이 높은 영아로 양육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또한 표준 체중보다 통통한 것을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통통한 영아가 더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모유수유아가 6개월까지는 모유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유식 첨가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며 이유식 시행 후에도 모유 양을 줄이지 않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모유 수유아가 비만이나 과체중이 될 확률은 낮다고 하나, 생후 1년 미만 영아에서 비만증이 호발하므로 추후 영아의 성장과 건강 지표로 단순히 체중과 신장만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체중과 신장비 혹은 비만도와 관련된 평가(Ju 등, 2001)와 성장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한국형 Denver II 발달 검사 결과는 해당 연령선에서 지연항목이 없고 주의항목이 1개로 모두 정상 발달이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소아과 의사의 추천을 받은 건강한 모유수유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례의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치르면서 정상발달이나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진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발달검사를 맡은 심사위원 회의에서 발달 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였다. 이는 편의상 점수화 한 것이므로 점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아의 건강력에서 알레르기가 있는 영아는 무응답을 제외한 129명 중 단 한명으로 나타나 모유수유의 알레르기 감소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변횟수가 하루 1회 혹은 2회가 8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Kim(1995)의 연구에서 설사, 즉 잦은 배변이 가장 높은 상담 빈도를 보인 결과와 차이가 났다. 하지만 Kim 등(2001)의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참가 영아 대상 연구 결과에서 하루에 0.5~1회가 76.5%로 본 결과와 유사하며, 모유수유 하는 신생아는 하루에 2~3번 정도 배변(Wong et al., 2003)한다는 것과 본 연구 대상자가 5개월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본 연구 대상 영아의 체중과 신장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와 같거나 양호한 상태이고, 정상발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레르기와 배변횟수로 본 건강력 또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유수유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을 현재 체중과 신장 및 Denver II에 의한 발달검사, 간단한 건강력으로 측정 한 것은 전반적인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추후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 상태의 지표가 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선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의 수유경험으로 모유수유 횟수는 6회 이상이 78.7%, 9회 이상도 22.1%였다. 이는 모유수유의 특성상 영아 요구에 따른 수유와 조제유보다 짧은 2~3시간 간격의 수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잦은 수유 횟수로 모유수유모는 아기에게 완전히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수유모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나 본 연구 대상자인 영아모의 모유수유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조사에서 잦은 수유빈도를 지적한 어머니가 4.8%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고, 모유수유로 인한 어머니의 생활양식에서의 어려움 또한 15.2%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연구 대상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수유태도는 본 연구 대상 어머니가 5개월 이상 완전 모유수유를 지속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모유수유 지속계획은 영아가 원할 때 까지가 48.3%로 가장 많았고, 11~12개월까지를 합하면 89.7%에 달해 대부분의 대상 어머니가 장기간 수유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단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수유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간 수유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모유수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공장소에서의 수

유공간 미비였다. 이것은 Hwang(2004)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헌 고찰한 결과에 의하면 Anne-Louise, Megan과 Chritine의 뉴질랜드 모유수유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Hwang, 2004에서 인용함) 공공 장소에서 모유수유 곤란을 인지하는 것은 모유수유 기간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와 취업모의 모유수유 저해요인으로 수유할 장소가 없다는 것(83.6%로 나온 것(Byun, 1995)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아가 5, 6, 7개월이 되면 예방접종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흔하고, 최근에는 젊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출 시에 안전하게 모유수유를 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감을 느낀 결과라 생각한다. 이것은 또한 누군가 집안일을 해 준다면 영아와 하고 싶은 일 중 자연경관과 동식물 보여주기, 집밖 세상 보여주기, 육아모임 참석, 여행, 문화공간 이용하기 등 외출에 높은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 의식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 수유를 하는데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수유 장소를 배치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유수유 과정에서 총 38%의 어머니가 유방울혈, 유두 통증, 유두함몰이나 유두 크기와 같은 유방 문제를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1995)의 연구에서 100명 중 26명이 상당한 내용으로, 이 문제의 대부분은 올바른 수유자세나 빨리는 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Kim, 1995)는 점에서, 산욕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이러한 유방문제로부터 어머니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전 산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주위에서 조제유 권장에 대한 압력이 있고, 연구 대상자가 모유수유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량 부족에 대한 어려움과 모유량 측정 곤란을 호소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와 같은 기간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양육 관련 지식을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젊은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이라는 하나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정보를 이용할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 지식을 의료 전문가로부터 얻는 어머니가 극소수인 결과는 건강한 아동의 양육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양육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자신감의 증가는 양육행동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Oh, 2000)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육아상담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관련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5년 9월 8일 경상남도 간호사회의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5, 6, 7개월 영아와 어머니 각 49쌍, 48쌍, 48쌍 총 145쌍을 대상으로 영아의 성장발달과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8월 8일에서 8월 13일까지와 9월 8일 대회 당일이었다고, 연구도구는 참가자가 신청 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대회 참가신청서에 첨부된 사전조사지와 대회 당일 심사위원이 평가한 심사기준이다. 사전 조사지와 심사기준은 모유수유전문가, 아동간호학 교수, 신생아실 수간호사, 소아과 의사가 포함된 15명의 심사위원이 협의를 통해 제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57.2%였고, 아버지 연령은 평균 33세, 어머니 연령은 평균 30세였다. 어머니의 84.1%가 취업하지 않았고, 재태기간은 평균 39.43주였으며, 영아의 출생 순위는 첫째가 56.6%로 가장 많았다. 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가 57.9%였고, 자연분만이 72.4%였다. 영아의 출생 시 평균 체중은 3,408.38±3.39gm이었고, 신장은 50.81±.16cm이었으며, 두위는 34.50±.19cm, 흉위는 33.53±.21cm이었다.
- 영아의 현재 체중은 한국 소아발육표준치와 비교했을 때 남, 여아 모두 5, 6, 7개월에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고, 현재 신장은 5개월 남아에서만만 p<.05 수준에서 더 컸다.
- 발달상태는 Denver II 검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 알레르기가 있는 영아는 1명으로 나타났고, 배변횟수는 하루 1회가 58.6%였으며, 다음이 2회로 24.8%였다.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13.86±.27 시간이었다.
- 어머니의 수유경험으로, 완전 모유수유 기간은 5개월이 31.7%로 가장 많았고, 하루 모유 수유 횟수는 7회 이상이 68.3%였다. 모유 수유계획은 '아기가 원할 때까지'가 48.3%로 가장 많았고, '11~12개월까지'가 그 다음으로 41.4%였다. 모유수유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 장소에서의 수유공간 미비가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유방울혈(젖몸살)로 15.9%, 초기 적응장애 14.5%, 수유자세 11.7% 순이었다.
- 어머니의 양육 경험으로, 영아를 처음 접촉한 시기는 1일 이내가 55.2%였고, 영아를 재우는 체위는 양위위가 66.9%로 가장 많았다. 누군가 집안일을 해 준다면 영아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영아와 마음껏 놀아주고 싶다가 5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 경관과 동식물 보여주기 18.6%, 실컷 잠자기 17.2%, 집밖 세상 보여주기 15.91%로 나타났다.

- 어머니의 양육 지식으로, 지식의 출처는 인터넷이 8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른 및 이웃 62.8%, 책 52.4% 순이었고, 어머니가 획득한 지식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7(±.01)점이었다.

알고 싶은 모유수유 관련 지식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절한 모유수유 기간이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이유식 시작 시기와 양 7.6%, 밤중 수유 중단 시기와 방법, 어머니가 섭취하는 음식 및 약물이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각 6.2%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모유수유 영아의 성장은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편이었으며, 어머니의 양육 경험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었으나, 모유수유를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 정책적 배려와, 산전과 산욕 초기에 유방관리를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모유수유 결과를 반영하는 영아의 성장발달과 건강 지표 및 어머니의 양육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은 심사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외출 시에 모유수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 장소에 모유수유실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 모유수유 초기에 유방 불편감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중단하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산전 산후유방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한다.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한 영아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모유수유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올바른 모유수유를 위해 어머니들이 모유수유를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H. S. (2004). *Pediatrics* (8th ed.). Seoul : Daehan Gyogwaseo.
- Byun, S. J. (1995). A study on performance of breast feeding by employed mother. *Korean J Women Health Nurs*, 1(2), 137-152.
- Han, Y. I., Seol, M. Y., & Kim, E. S. (1995). A longitudinal study on human milk intake and growth of breast-fed

- infants in Cheonju area. *J Appl Sci Technol*, 4(1), 131-147.
- Hwang, W. J. (2004). *The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breastfeeding rate and du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Ju, H. O., Lee, H. Z., & Kim, Y. H. (2001). A study on the growth, development and obesity index of breast-feeding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7(4), 511-518.
- Kang, J. S. (2006). *The effects of breastfeeding empowerment program on breastfeeding mother's empowerment state, problems in breastfeeding, and breastfeeding practice r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im, M. Y., Kwon, I. S., Kim, S. O., Kim, E. K., Kim, T. I., Moon, J. H., Song, I. S., Shin, S. S., Sim, M. K., Lee, S. Y., Jung, K. A., Jung, S. E., Jo, G. C., & Choi, M. H. (2004).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Seoul : Su Mun Sa.
- Kim, Y. H., Lee, H. J., & Kim, S. G. (2001). The study of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mong the young infant's mothers. *Korean Parent-Child Health J*, 4(2), 1-15.
- Kim, S. G., Cho, A. J., Kim, Y. K., Park, S. K., & Lee, K. O. (2003). *2003 Survey on the national fertility, family health and welfare*.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H. S. (1995). Analysis of the content of telephone counseling with breastfeeding mothers. *J Korean Acad Nurs*, 25(1), 17-29.
- Lee, C. W., Willoughby, D., & Mayo, R. (2005). Comparison of breast feeding trends in urban versus rural areas : Recommendations to improve breast feeding in rural America.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1), 5-11.
- Lee, H. J. (2003). A study of the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with breast-feeding infant's mother.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7(2), 145-153.
- Lee, H. J., Kim, Y. H., & Cho, Y. R. (2005). Attachment-oriented caretaking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in mothers of breast-feeding infa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1(2), 189-195.
- Lee, J. Y., Park, S. W., & Park, J. H. (2002). A survey on breastfeeding practices and its related factors in pohang city.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6(1), 146-167.
- Lee, S. O. (2003). A study breastfeeding knowledge, attitude and problem of breastfeeding in early postpartum period and breastfeeding practi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9(2), 179-188.
- Lee, S. O., Chung, E. S., Ahn, S. H., Moon, G. N., & Park, N. H. (2003). A study of predictors of breastfeeding.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9(4), 368-375.
- Lee, S. Y. (1998). A concept analysis of the rearing.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4(1), 76-85.
- Lowdermilk, D. L., Perry, S. E., & Piotrowski, K. A. (2003). *Maternity Nursing* (6th ed.). St. Louis : Mosby.
- Oh, M. Y. (2000).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iparas'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puerperi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Park, C. M. (2002).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the practice of breast-feeding.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19(2), 23-43.
- Park, E. O., Lee, K. S., Jang, I. S., & June, K. G. (2001). Breast-feeding & breast-feeding health behavior among first-time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7(3), 382-392.
- Park, S. H., & Koh, H. J. (2001). Effect of Breast-feeding education and follow-up care on the breast-feeding rate and the breast-feeding method: focused on home visit and phone counselling. *Korean J Women Health Nurs*, 7(1), 30-43.
- Shin, H. S., Han, K. J., Oh, K. S., Oh, J. J., & Ha, M. N. (2002). *A guidance of Korean Denver II*. Seoul : Hyunmoonsa.
- Wong, D. L., Hockenberry, M. J., Wilson, D., Winkelstein, M. L., & Kline, N. E. (2003).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St. Louis : Mosby.
- Yeo, J. H. (2005). Influencing factors in breast feeding dur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2), 142-147.
- Yeon, S. E. (2004). *Effect of the breast feeding knowledge, method and feeding rate in primipara about the education of breast feeding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prenatal and postnatal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Yoo, E. K., Kim, M. H., & Seo, W. S. (2002). A study on the rate of breast-feeding practice by education and continuous telephone follow-up. *Korean J Women Health Nurs*, 8(3), 424-434.